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分斷國調查研究

傳統的 民族概念과 共產圈民族概念比較研究

研究執筆責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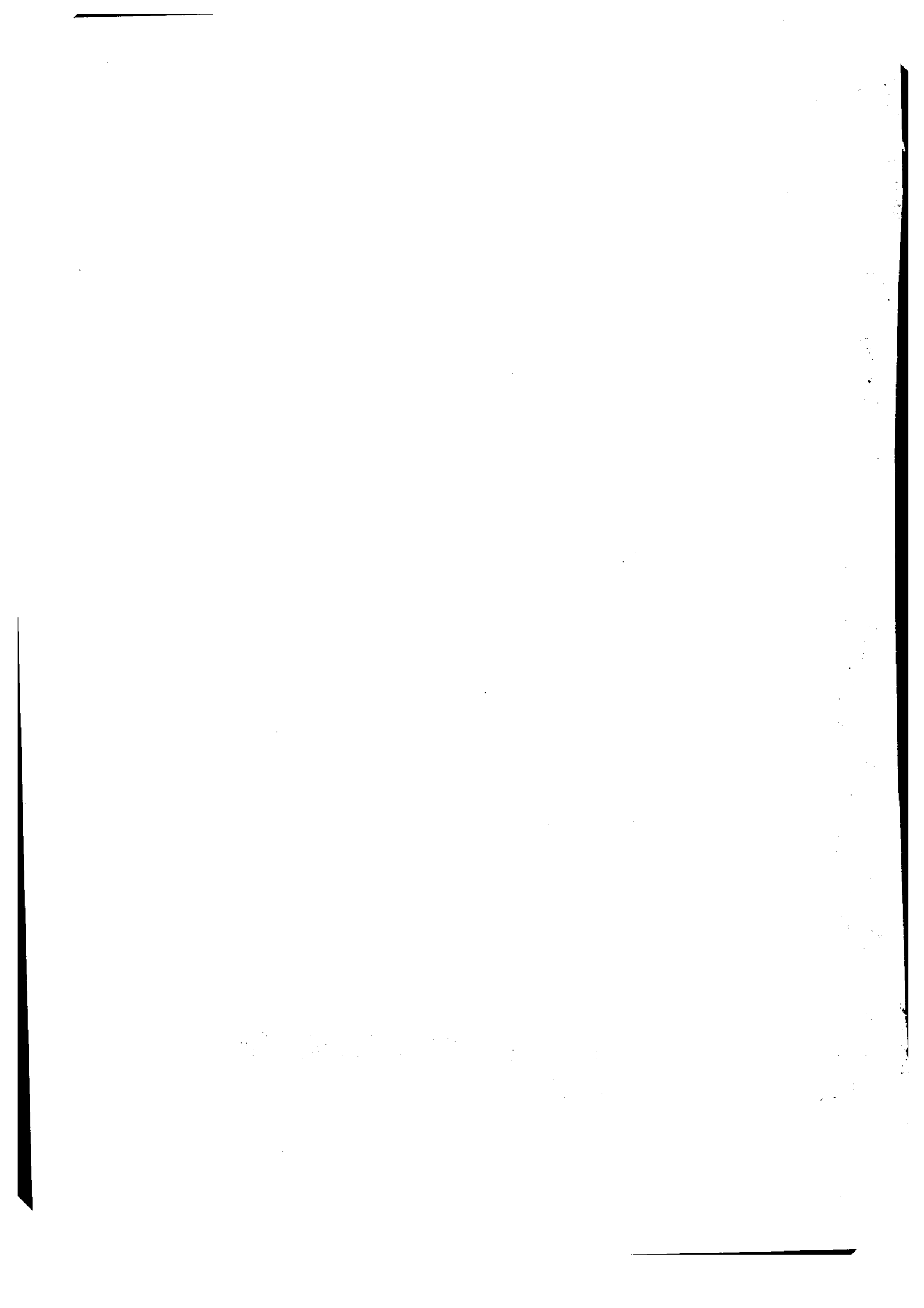
金 容 九

(略歷) 서울大 文理大 外交学科卒 및
同大学院·博士課程 修了
서울大 外交学科 專講 (1969-1971)
東京大에서 研究 (1970-1971)
서울大 外交学科 助教授 (1971-現在)
Paris 大에서 研究 (1975-1977)

刊 行 責 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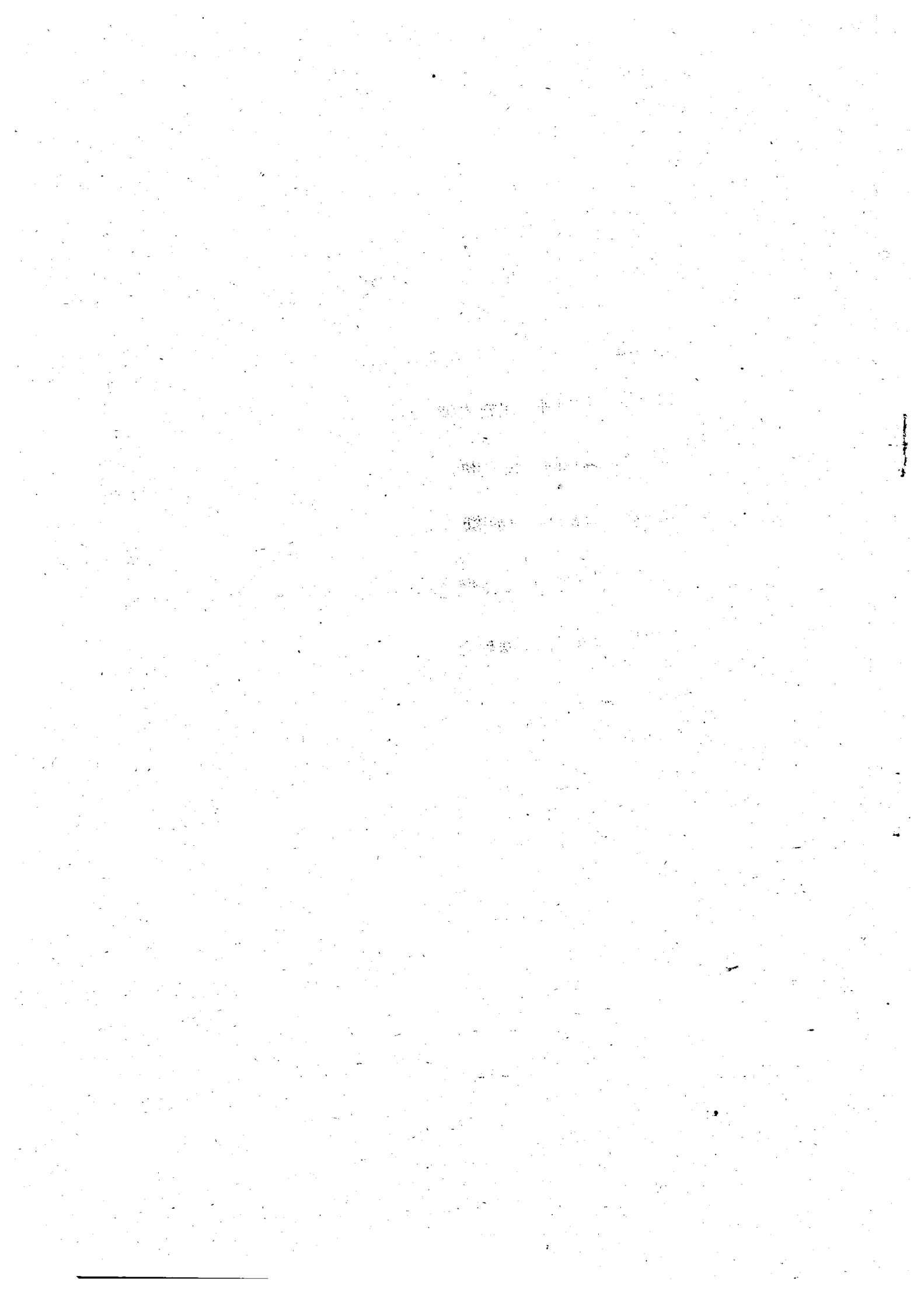
金 德 重 (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序 論	-----	3
第一章 民族斗 民族主義	-----	7
第二章 傳統的 民族概念	-----	9
第三章 韓國의 民族概念	-----	13
第四章 共產圈의 民族概念	-----	17
第五章 北韓의 民族概念	-----	28
結 論	-----	36
< 註 >	-----	38



序 論

民族問題는 여러 立場에서 分析될 수 있음은 勿論이다.

여기에서는 民族問題를 무엇보다 政治學的인 立場에서 다룬다는 것을 前提하고 있다. 이것은 民族을 民族主義運動과 결부시켜 取扱하며 民族自體의 形式이나 內容보다는 近代國家化하려는 運動의 人的인 構成으로서 그것이 어떻게 政治統治의 名分이 될 수 있느냐하는 데 問題의 焦點을 두고 있다.

民族은 後述하는 바같이 民族主義運動에 들어선 段階에서 取扱하며 이것을 「民族主義的 民族」이라고 일단 부르고 「民族的 民族」과 區別짓는다. 이러한 區別은 곧 本研究에 있어서는 國民主權思想과 결부된 民族主義運動이 결부된 近代後期에 政治統治의 名分으로서의 民族을 問題삼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民族主義的 民族은 近代國家에 있어서 政治統治의 名分이며 最高理念으로서 役割을 하고 있다. 勿論 近代國家를 完成한 以後에는 民族主義的 民族을 넘어선다는 政治名分을 내걸고 있는 사실이 있으나 그러나 近代國家의 完成까지에는 民族主義的 民族의 完成이 그 政治名分이자 最高理念으로서 看做된다.

그러나 古典的인 共產主義理念에 있어서나 또 現實的으로 共產主義 國家의 登場以後의 政治名分에 있어서나 그들에게는 적어도 名分의 世界에 있어서는 民族主義的 民族이 最高理念도 아니며 政治統治의 名分도 아니라는 새로운 觀念體系가 形成되었다. 그들에게는 階級이

라는 國際的인 連帶로서 團結된 世界社會主義革命이 政治名分으로 作用하고 그것이 最高理念이라고 觀念되고 있다. 現實이 그렇지 않다는 것과 그들의 名分과는 區別된다.

우리의 立場에서 보면 이와같은 名分論을 한갓 論理의 操作으로 여겨지기 쉽다. 韓民族은 高麗朝以後에 하나의 民族으로 形成되어 왔고 그것이 韓國民族主義의 基底를 이루었으며 그러한 엄연한 歷史的인 實體를 의심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理由에서 우리는 解放以後 近代國家를 完成하려는 運動으로서의 韓國民族主義만을 論하여 왔으며 民族自体에 對하여는 적어도 政治學的인 立場에서는 論外의 對象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事情은 바뀌었다고 본다. 韓民族이란 歷史的인 實體가 客觀的으로 存在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認識하고 있느냐하는 問題와는 別個의 問題이기 때문이다.

韓國民族主義的인 民族의 完成이 政治統治의 名分이며 理念이라고 하는 當然視되는 觀念과는 對立되는 다른 觀念體系를 北韓에서 現在 組織的으로 形成시키고 있다는 것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1972年 2月以來 展開되고 있는 소위 三大革命運動은 곧 共產主義 人間의 形成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事情은 그들이

1977年 9月 勞動黨 第5期 14次 全員會議에서 採択된 「사회주의 敎育체제」에 明白히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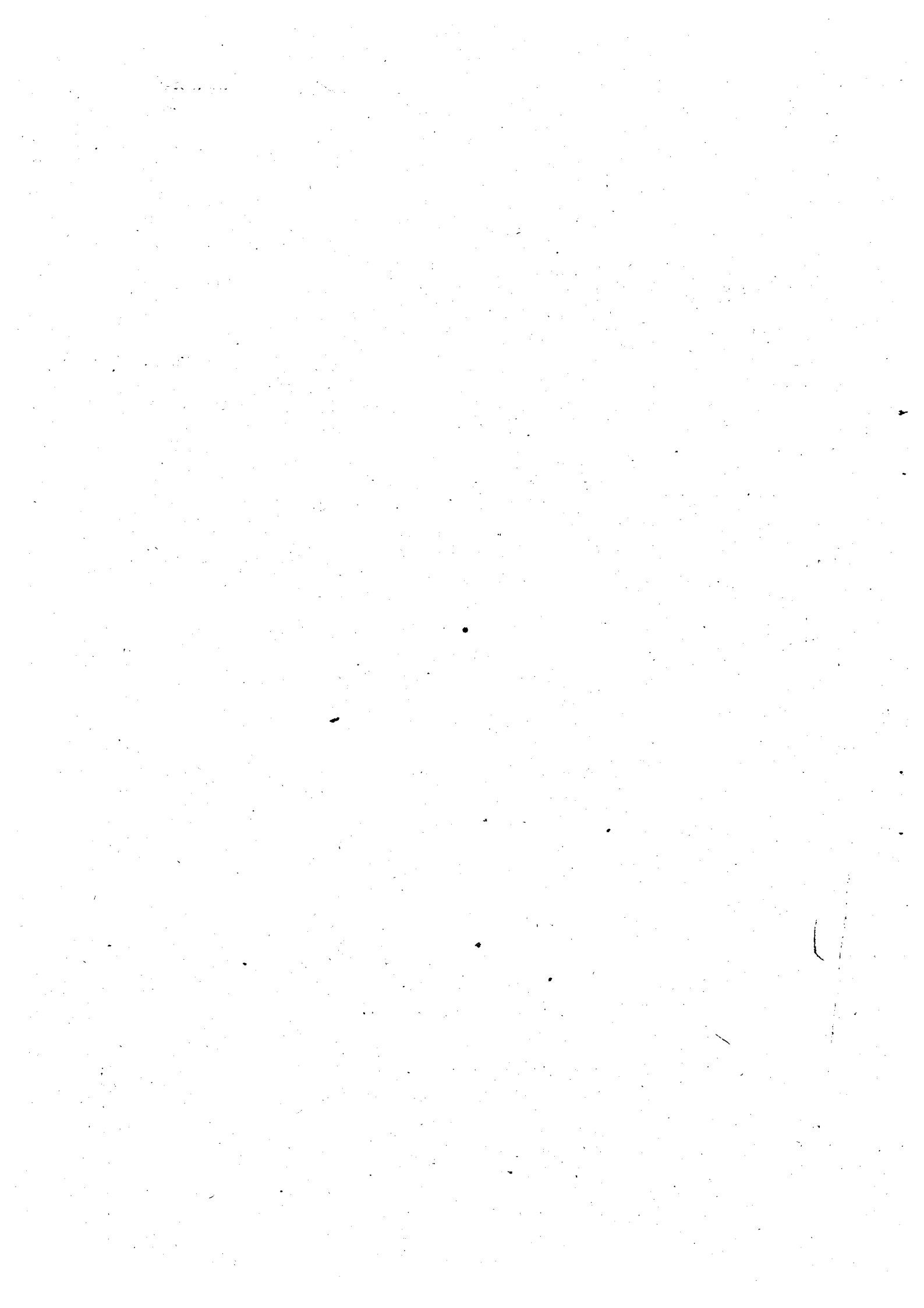
이 체제의 前文에 「...사람들을 公산주의적으로도 敎양 改조하여 사상적 要素를 檢정하는데 선차적 힘을 넣어야 한다」¹⁾라고

前提하고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의 하나가 人間의 共產主義化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事情으로 傳統的인 民族概念과 共產主義의 民族概念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問題와 더불어 北韓의 民族概念은 어떤 것이며 우리와 어떤 點에서 相異한가를 檢討해야 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韓國民族主義의 民族은 실은 統一의 名分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名分을 南北韓이 다르게 觀念하고 있다는 것은 重大한 問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觀念의 相異點이 무엇인가를 認識하고 그것을 克服하여야 된다는 것은 단순한 學門上의 問題만은 아닌 것이다.



第一章 民族과 民族主義

民族이라는 歷史的인 實體는 民族主義라는 運動과 關聯하여 政治學的으로 問題가 된다.

歷史적으로 民族主義運動의 展開와 關係없는 無數한 民族의 存在가 歷史上 있어 왔으며 또한 反對로 民族의 實體가 完成되지 않았는데도 民族主義라는 政治的 運動이 展開되기도 하였다.

前後의 두드러진 예는 中央아시아에 散在하고 있는 수없는 民族일 것이며 後者の 例는 二次大戰以後 新生獨立國家들의 경우를 생각하면 간단할 것이다.

따라서 民族主義와 民族은 不可分離의 關係에 있는 概念이지만은 그러나 결코 반드시 歷史적으로 同時的인 概念은 아닌 것이다.

民族이란 歷史的인 實體가 先在하고 어떠한 政治的인 契機에 의하여 그 歷史的인 實體가 民族主義運動의 原動力이 된다는 것은, 理論의 領域일뿐 現實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通例라고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民族主義運動에 들어선 民族을 여기서는 問題로 삼고 있다. 그것을 「民族主義的 民族」이라 부른다.

따라서 이것을 民族主義運動과 關係되지 않는 歷史的 實體로서의 民族과 區別짓고 後者를 「民族的 民族」이라고 부른다.

民族主義的 民族이라고 하는 경우 民族主義는 近代國家의 形成과 完成을 目的으로 하는 政治運動이라고 일단 定義한다. 이런 점에서 近代國家를 單位로 하는 國際政治秩序가 全世界에 波及됨에 따라서 民族主義運動도 불가피하게 波及되는 것이다. 韓國의 民族主

義도 旧韓末 이러한 國際政治秩序와의 接觸으로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民族主義가 近代國家의 完成이라는 政治運動인 고로 그것은 共產主義와는 理論上 成立되지 않는다. 共產主義國家는 現代라는 歴史的 段階에 있어서는 近代國家라는 政治形態를 取하고 이러한 政治形態에서 나오는 近代國家的, 民族的인 現象이 나오지 않는 理論上 그리고 名分으로는 階級을 바탕으로 하는 反近代國家的인 이데오로기를 同時에 갖고 있지 않을 수 없는 兩面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民族主義는 부르조아 이데오로기라고 하지마는 民族主義的 民族의 実体에 對하여는 어떤 歴史的인 評價를 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을 取하고 있는 것이다.

本 論文에서는 이러한 民族主義的 民族에 대한 傳統的인 概念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러한 概念圈에 屬하고 있는 韓國의 民族主義的 民族이 안고 있는 問題點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고 民族主義的 民族에 관한 共產圈概念을 주로 소련의 理論을 中心으로 檢討하고 北韓의 이 問題에 관한 態度를 살핀다.

第二章 傳統的 民族概念

民族은 勿論 民族主義의 人的인 構成을 말한다. 民族主義는 近代國家의 形成과 完成을 위한 運動인고로 그러한 運動의 主体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民族은 “단순한 客觀的인 實체가 아니라 「내」나라라는 歸屬感과 情感의 所有者인 사람과 集團의 集結體이면서 同時에 「나라의 主人」이라는 權利의 源泉으로 규정된다” ①

「내」나라라는 歸屬感의 所有者로서의 民族은 곧 近代國家의 人的인 構成員을 가리키는 것이며 단순한 靜態的인 概念이 아니라 남에 대한 나의 民族을 앞세우는 動態的이고 力動的인 概念인 것이다. 또한 그것이 「나라의 主人」이라는 權利의 源泉인고로 治者와 被治者가 區別되는 소위 近代前期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治者와 被治者가 自同하다고 觀念되는 國民主權思想과 깊이 關聯되어 있으며 統治의 名分이 被治者의 同意에 立脚하고 있는 프랑스革命以後에 「民族主義的 民族」이 問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基準에 의하여 歷史上 存在하여온 여러 形態의 人間集團을 이러한 民族으로 看做할 수 있느냐하는 基準의 問題가 나온다. 이 問題는 歷史的인 實在로서의 民族이 어떤 契機에 의해서 民族主義的 民族으로 되느냐 하는 問題와 民族主義運動이 먼저 展開되는 경우 그 主体를 어떤 基準으로서 把握해야 되느냐 하는 問題와 關聯된다.

여기에는 어떤 定說이 있을 수 없어서 어떤 基準을 設定하면 그 基準에 맞지 않는 現實이 存在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一般的이고 共通的인 基準을 살펴본다.

이 問題에 대하여 學者들은 소위 客觀的 要素와 主觀的 要素를 区分하여 왔고 論者에 따라서는 이들 中 어느 特定한 要素만을 강조하기도 한다.

客觀的 要素란 政治機構, 地域, 歷史, 經濟秩序, 言語등을 말하며 主觀的 要素란 意志, 意識, 忠誠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民族의 緣이 여기에 該當된다.

客觀的 要素로서의 政治機構란 과거에 같은 政治機構아래서 生活하였던지 現在 그렇든지 아니면 未來에 그러하리라는 希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當然視될 수 있는 이 基準은 分斷國家에게는 여러 問題를 惹起시킨다. 그것은 現存하는 두 政治体制과 未來의 하나의 政治体制간의 價值序列問題도 그렇거니와 相反되는 두 政治体制위에서는 名分으로서의 未來의 政治機構像을 提示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地域이란 客觀的要素는 近代國家가 領土國家라는 點을 생각하면 充分하다. 國境線으로 劃定된 領土國家로서의 近代國家는 國境이 Space 였던 中世國家나 儒教圈의 경우와는 判異한 政治形態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民族主義의 主體로서의 民族은 이스라엘 建國以前 유대人的 경우같은 例外는 있다하더라도 原則上 一定한 地域의 領域內에서 生活하는 人間集團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같은 經濟秩序, 같은 言語, 같은 歷史, 宗教등을 列挙하고 있으나 이런 모든 要素의 具備는 理想型이지 現實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욱 많다.

그러나 이런 모든 要素를 理想的으로 具備하고 있다하더라도 民族主義的 民族이 自生하는 것은 勿論 아니다.

民族主義的 民族의 形成에는 무엇보다 남에 대한 「나」로서의 民族의 同一體感, 共同意識 乃至는 意志가 必要하다는 것은 論者마다 列挙하는 點이다.

民族의 同一體感의 形成에는 民族의 構成人 各자가 나라의 主人이라는 意識이 있어야 되며 따라서 民族主義的 民族은 國民主權思想의 抬頭와 時期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主觀的 要素를 가장 重視하였던 E. Renan은 “民族은 열이며 精神的인 原則이다. 그것은 같이 生活한다는 明白히 表現된 意思나 同意라고 하는 實體的인 事實로서 要約된다. 民族의 存在는 每日 舉行되는 人民投票인 것이다”^②라고 말하여 民族의 對內的인 面, 즉 主人이라는 意識이 가장 重要하다고 강조한 바 있었다.

위에서 보아온 傳統的인 民族主義的 民族의 概念이 갖고 있는 特徵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民族主義的 民族은 特定한 歷史的 段階, 즉 프랑스革命以後 治者와 被治者가 自同하다는 近代後期에서 비롯된 概念이다. 그러나 그것이 完成되기 以前에는 그 完成이 最高理念이지 다른

어떤 理念을 志向하는 過渡的인 現象으로 把握되지 않는다.

勿論 民族國家를 完成한 歷史的 段階에 들어선 國家들은 民族國家의 範圍를 超越하여 다른 政治形態를 取하려는 事實이 있으나, 그러나 民族主義的 民族의 未完成 段階에 머물고 있는 限 그 完成이 最高理念이라는 것이다.

民族主義的 民族은 近代國家의 政治統治의 名分이라는 것이다. 政治統治의 名分이기 때문에 그것은 民族全體를 意味하는 것이지 民族의 特定한 階層이나 構成員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勿論 모든 集團에는 主導勢力이 있듯이 民族에도 主導勢力이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다. 소위 民族의 社會構成의 問題가 이것이다. 그 主導勢力은 民族全體를 代辯하고 그 構成員들의 活性化에 이바지하는 것이 最高任務라고 看做되어 왔다. 歷史적으로 볼 때 主導勢力과 其外의 社會構成員간에 알력이나 鬪爭이 存在하여 왔으나 그런 알력이나 鬪爭만이 民族主義的 民族의 發展過程으로는 看做되지 않는다.

따라서 民族全體가 主人이라는 意識으로 團結되어야 한다는 것이 民族主義的 民族의 最大課題이다. 이런 課題가 解決되어야 統治의 名分으로서 作用될 수 있기 때문이다.

第三章 韓國의 民族概念

韓國의 民族概念은 이러한 傳統的인 民族概念에 基本的으로 立脚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解放以後 이 關係研究에 있어서 民族에 관한 概念規定은 이런 線에서 대개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特定한 個人의 研究라는 意味가 아니고 그러한 民族의 概念規定이 아무런 拒否反應없이 適用되고 있다는 事實이 重要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民族概念이나 理念에는 特殊한 点이 있는 것이다. 韓國의 民族主義의 基底로서의 韓民族이라고 하는 歷史的 實體는 韓國民族主義에 歷史的으로 先在하였으며 그것이 單一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事實이다. 一見하면 民族主義的 民族의 完成을 위하여는 理論上 가장 理想的인 形態의 것 같으면서도 現實은 이와 거리가 먼 것이 悲劇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잠시 言及하였듯이 韓國의 民族主義는 西歐國際政治秩序와의 接觸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当初부터 韓國民族主義의 民族은 外勢에 대한 抵抗으로 團結되어 있었다. 對外的인 敵의 概念으로서 UNG쳐져 있었기 때문에 民族主義的 民族의 對內的인 面, 즉 民族構成員 各자가 主人이라는 意識과 民族의 社會的 構成問題보다는 外勢라는 뚜렷한 敵概念이 問題였었고 그 對內的인 問題의 解決보다는 外勢에 의 抵抗이란 것이 緊急한 問題였다.

周知되듯이 이러한 事情은 日帝時代에 더욱 두드러진다.

獨立의 爭取라는 對外面에의 執着은 그 對內的인 面의 未整頓, 未解決을 낳았고 그 影響은 解放以後의 狀況이 말하여 주는 바와 같다.

이러한 狀況이 戰後 계속되지 않을 수 없었던 또 하나의 挑戰을 韓國民族主義的 民族은 받게 됐다. 韓國은 世界政治의 辺境國家라는 國際政治的인 位置로 말미암아 韓國民族主義의 民族은 또다시 敵概念의 形成으로 團結되게 되고 그 對內的인 面의 解決에 必要한 條件을 앎고 만다

여기에 韓國民族主義의 民族에 對한 概念이나 問題點들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韓國의 民族概念은 傳統的인 民族概念의 큰 틀에 屬하고 있으며 그 民族主義의 基底로서의 韓民族이란 高麗朝以後 歷史적으로 先在하여 왔으며 民族의 理論上의 모든 基準을 具備하고 있는 單一民族이란 것은 말할 必要도 없다. 따라서 現時點에 있어서 이러한 民族의 完成이 最大目標라고 볼 수 있다.

韓國民族主義의 民族은 그 全體로서 統治의 名分이란 點이다. 이런 名分은 民族全體에 있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지 民族의 어떤 一部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觀念된다. 民族의 完成은 그 社會的인 構成間의 알력이나 鬭爭을 通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그간의 調和와 協助를 通하여 達成되어 왔고 또 그럴것이 라는 것을 假定하고 있다. 全體로서의 民族의 調和와 그것이 政治統治의 名分이 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民族構成員의 個權의 伸張을 通한 民族의 活性化가 最大의 課題이다.

韓國民族主義의 民族은 古典的인 市民民族主義의 民族이 안고 있던 課題를 解決해야 할 時期에 머물고 있다고 본다. 이 점이 韓國民族主義의 民族理念의 方向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또한 民族의 主導勢力問題와도 관련된다.

民族의 主導勢力의 形成과 그 役割에 관한 問題는 실로 韓國民族主義의 民族이 안고 있는 가장 큰 課題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韓國民族主義의 民族에의 歴史的인 諸制約으로 因하여 解決치 못한 問題였으며 前後의 國際政治的인 与件으로서 더욱 解決키 어려운 問題였던 것이다. 이 問題의 解決은 크게는 우리 社會의 歴史的인 發展段階과 關聯되는 것이기도 하며 個權의 伸張과 民族의 活成化라는 앞서 말한 問題와 密接히 關係되어 있어서 우리의 民族理念과 方向에 重大한 問題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歴史的인 時点에서 있는 韓國民族主義의 民族에 대하여는 重大한 두 가지의 挑戰이 存在하고 있다고 본다.

그 첫째가 國際政治的인 挑戰이다. 그것은 앞서 말한 바 우리 民族의 志向과 반드시 一致되어 있지 않다는 意味에서의 挑戰이다.

이 問題는 統一에 관계된 問題이기도 한데 이에 對処하기 위하여는 또다시 民族의 主導勢力과 民族의 活性化가 問題된다.

두번째의 挑戰은 傳統的인 우리의 民族概念이나 理念에 대하여 韓半島 一部 地域 內에서의 挑戰이다. 이것은 「民族」이란 外樣을 띠고 있으나 그 內容은 全然 다른 概念이며 그 志向하는

바가 또한 다를 뿐 아니라 그러한 概念이 正當한 것이라고 組織
적으로 主張하고 있는데 問題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共產主義의
民族概念과 北韓의 民族概念에 대한 分析이 問題된다.

第四章 共產圈의 民族概念

- 蘇聯의 民族概念을 中心으로 -

共產圈內의 民族概念이 결코 一元的인 것은 아니다. 蘇聯의 民族概念에 대하여 유고나 中共은 말할 必要도 없으며 루마니아등 소위 獨自路線을 표방하는 나라들의 民族에 대한 見解나 態度가 相異한 바 있다. 그런데 北韓의 民族概念은 共產圈內의 여러 民族理論中에서도 基本的으로 蘇聯의 理論을 받아 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共產圈內의 諸理論을 列挙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여 여기서는 蘇聯의 民族理論을 본다.

共產主義國家는 歷史的인 現段階에 있어서는 近代國家이면서 反近代國家라는 兩面性을 지니고 있는 獨特한 政治形態인 것이다. 近代國家라는 政治形態의 外樣을 떠지 않을 수 없는 歷史的인 동안에 있어서는 必然的으로 國家的, 民族的인 利害가 나오게 되는 것이며, 階級을 바탕으로 하는 近代國家破壞 위에 立脚한 社會主義 世界建設이라는 名分을 갖고 있는 反近代國家的인 理念國家라는 點에서 必然的으로 國際的이고 反民族的인 名分이 同時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主義革命以後에도 相當한 歷史的인 期間동안에 近代國家라는 政治形態가 存在하리라고 상상하지 못하였던 맑스나 엥겔스에 있어서는 民族問題는 第一次的인 關心의 對象은 아니었다. 단편적인 論及以外에는 그들은 어떤 一貫된 民族理論을 展開하지는 않았다.

이 問題는 러시아革命을 目前에 두고 레닌과 스탈린에게 現實的으로 提起된 問題였다. 그것은 社會主義革命遂行에 있어서 어떻게 民族的인 力量들을 규합할 수 있는나 하는 現實的이고 戰略的인 問題로 提起된 것이었다.

民族問題는 레닌과의 協議를 거쳐 스탈린에게 맡겨진 問題였다. 그는 民族問題論文의 執筆을 위하여 1913年 1月, 1個月間 비엔나에 滯留하면서 發表한 것이 “마르크스主義와 民族問題”라는 論文으로서 共產主義文獻에 있어서 民族問題自体에 대한 最初의 研究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여기에서 民族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民族이란 言語, 地域, 經濟生活의 共同體 그리고 文化共同體에 나타나는 心理的 形成의 基礎로서 發生한 人間의 歷史的으로 구축된 公同한 共同體이다.

이와 同時에 民族이란 모든 歷史的 現象과 마찬가지로 變化法則에 從屬되어 있으며 그 自体 歷史를 갖고 있어서 始作과 더불어 終末이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다.

上述한 基準들의 어떤 하나로서도 民族을 定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할 必要가 있으며 또한 이들 基準의 어느 하나라도 缺한다면은 民族이 될 수 없는 것이다.” ③

이와 같이 1914年 스탈린의 民族概念은 上記 4가지 要素가 그 構成의 必須充分條件이란 것 . 民族은 歷史的 範疇로서 그것은 封建期가 解体된 以後 資本主義時代의 歷史的 範疇로서 規定하고

따라서 社會主義革命과 더불어 民族의 融合을 豫見하고 있다는 點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民族概念은 첫째로 民族史의 斷切을 意味하게 된다.

즉 資本主義生産樣式의 發生以前의 人間共同體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하는 問題가 解決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社會主義革命以後의 民族的인 存在를 어떻게 解決해야 되느냐 하는 問題도 宿題가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같은 理論上의 問題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스탈린은 1929年 “民族問題와 레닌主義”를 發表하여 소위 社會主義的 民族과 부르조아民族을 区分하였다. 뿐만아니라 N.Marr의 言語의 上部構造性格에 관한 言語學理論에 있어서 青年學者들의 質問에 대하여 스탈린은 1950年 6月 프라우다紙에 “맑스主義와 言語學의 諸問題”란 論文을 寄稿하였는데 그는 여기에서 言語란 上部構造의 範疇가 아닌 人間의 交際手段이라고 밝히면서 「準民族」(Narodnost)란 概念을 도입하였다.⁴⁾ 즉 人間共同體의 發展過程을 種族, 準民族, 부르조아民族, 社會主義的 民族 그리고 民族의 融合 등의 順序로 看做하였는데 여기에서 準民族이란 原始共同社會의 崩壞以後로 부터 封建制 瓦解까지의 人間集團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위에서 본 스탈린의 民族概念과 問題點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民族이 될 수 있는 要件을 言語, 地域, 經濟生活 및 心理狀態라는 4가지로 보고 이것을 同價值的으로 看做하고 있다는 點이다. 心理狀態라는 要件을 두고 있으나 스탈린의 民族理論은 基本的으로

客觀說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4가지 要件의 必須性을 강조함으로써 現實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을 뿐 아니라, 戰後 分斷國家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곧 二民族理論으로 不可避하게 유도된다.

스탈린의 民族理論은 基本的으로 傳統的인 民族主義的 民族의 경우를 想定하고 있다. 즉 民族이라는 歷史的 實體가 存在하고 그와 더불어 民族主義가 抬頭되는 경우를 假定하고 있다. 따라서 戰後 新生國家들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보는 바 같이 民族이라기 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準民族의 形態에서 民族主義가 抬頭되고 民族의 形成을 拳論하게 되는 現實을 도저히 說明할 수 없게 된다.

스탈린의 民族理論을 보면 種族, 準民族, 民族, 社會主義的 民族 등의 發展過程을 밝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發展過程이 馬克思主義의 歷史發展法則과 合致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提起된다.

소위 社會主義的 民族의 內容을 보면 무엇보다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의 연결로 강화되고 조화된 民族임을 말하고 있으나 이것이 소련에의 從屬을 의미하는 強大國의 民族理論임을 말할 必要도 없다.

이와같은 스탈린의 民族理論이 그의 生存時에는 公式的인 見解였음은 勿論이고 ⑤ 그 死後에 이에 관한 討論이 있었으나 相當한 期間동안 스탈린式의 民族理論이 橫行하였다.

예를 들자면 1963年 第二 增補版으로 나온 「馬克思主義 레닌主義의 原理」에 보면 民族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그러한 民族의 基本的인 特徵은 무엇인가? 맑스主義文獻에 있어서 民族이란 用言은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意味한다. 즉, 같은 言語, 地域, 經濟生活 및 共同文化에 나타나는 心理的 狀態에 基礎하여서 歷史적으로 形成된 公同한 人間의 共同體라는 것이다” ⑥

그러나 學者들간에는 스탈린의 民族理論에 대한 論爭이 展開되었으며, 특히 重要한 것은 1966-1970年間 「歷史의 諸問題」誌를 통한 論爭이라고 볼 수 있다. ⑦ 이 論爭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스탈린은 1913年 論文에서 O. Bauer의 民族概念이 非歷史的인 것이라고 공격함으로써 人種學的인 範疇와 歷史的인 範疇와의 關係라고 하는 問題를 提起하였는데 이 問題가 論爭의 中心課題였다. 따라서 種族-準民族-民族-社會主義的 民族등이 原始共同社會-奴隸制社會-封建社會-資本主義社會-社會主義社會등과 同時的인 概念인가 하는 것이 問題이다.

스탈린의 民族概念中 心理的 狀態란 要素에 관한 論爭이었다. P.M. Rogachev. 과 M.A. Sverdlin. 이 心理的 狀態란 用語 대신에 民族的 特性이란 用語의 使用을 主張한 것은 民族의 基準에 있어서 主觀的 要素를 강조하고자 함이었다. 그들은 더 나아가 “同族關係의 意識”이란 要素의 첨가를 主張하여 N. Tavakalian, M.S. Dzhunusov, S.T. Kaltakhchian, V. Kozlou, 등의 支持를 받은 바 있었다.

B.V.Andrianov. 는 “國家性”이란 要件을 첨부한 것은 아프리카研究의 결과이지만은 社會主義的 民族에도 이 要件이 적용된다면은 現實적으로 重大한 問題가 아닐 수 없어서 大部分의 學者들은 이 要件을 反對한 바 있었다.

論争에 參與한 많은 學者들이 民族問題研究에 關하여 具體的인 研究資料가 不足하다고 認識하였다는 點이 重要할 것이다.

예를 들면 M.S.Dzhunusov.는 社會-人種的인 發展에 對한 經濟的 要因과 國家의 役割에 關한 研究가 全無하다고 지적하고 國民性的 構造 및 社會心理展開에 있어서 民族主義的인 動機의 役割과 重要性에 關한 研究를 提唱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이와같이 스탈린의 民族理論에 對한 批判이 展開된 結果로

1974年版 소련大白科辭典의 民族의 定義는 그 以前의 定義와는 다른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4가지 要素의 必須充分性を 강조하고 있지 않으며 經濟生活의 共通性的 重要性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點이 두드러진다. ⑧

그런데 스탈린의 民族概念에 對한 修正은 소련共産党中央委員會속 맑스主義-레닌主義研究所가 1977년에 刊行한 民族問題研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이 研究에 보면 “民族이란 매우 복잡한 社會組織으로서 그 本質과 特徵은 社會的 要素와 人種的인 要素, 客觀的 要素와 主觀的 要素의 同一性으로부터 나온다” ⑨ 라고 前提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스탈린의 客觀說을 修正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맑스·엔겔스의 民族理論이 갖고 있는 特徵을 다음과 같이 列挙하고 있다.

資本主義의 發生과 公高化에 뒤따른 社會發展의 民族的 形式의 登場을 明白히 함으로서 民族的 共同體의 歷史的인 性格을 규명하였다는 點

民族의 形式과 發展에 있어서 經濟的인 要素 특히 經濟生活의 共同性이 갖고 있는 決定的 役割을 明白히 하였다는 點

民族的, 國際的過程의 發展에 대한 階級的 要素가 갖고 있는 강력한 影響을 규정하였다는 點

民族形式에 있어서 言語와 地域의 主要性을 認識하였다는 點

民族의 發展에 대한 民族的 文化, 民族性등이 미친 影響을 明白히 하였다고 主張하고 있다. ⑩

이러한 맑스·엔겔스의 理論的인 遺産에 立脚하여 레닌은 民族의 社會構成問題, 民族의 歷史的 範疇性, O.Eamer의 文化共同體論批判, Narodism의 人種學的 理論의 批判, 言語, 地域, 經濟生活의 共同體등 民族共同體의 諸特徵을 明白히 하였을 뿐 아니라 經濟共同體란 要素가 가장 主要하다는 것을 提示하였다고 한다. ⑪

따라서 소련의 民族理論은 民族의 歷史的 範疇性, 民族의 特徵 中 主要한 것과 枝葉的인 것의 区分, 國民性이란 要素의 明白性등을 考慮하여 定義해야 된다면 民族의 概念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民族이란 言語, 地域, 文化, 意識, 心理의 共同体와 더불어 經濟生活的 共同体에 立脚한 社會發展의 한 形式을 構成하고 있는 人民의 持續的인 歷史的 共同体이다. 첫째로 이 定義는 民族은 社會發展의 한 形式이라는 레닌의 命題를 강조하고 있으며, 둘째 社會共同体로서의 民族의 抬頭과 發展의 決定的 要素인 經濟生活的 共同体란 要素를 밝혔고 셋째로 民族의 其外의 諸特徵이란 그 自体 發生되고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經濟生活的 共同体와 더불어서 發生되고 存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끝으로 이 民族의 定義에는 民族의 特徵中에 民族의 文化, 意識 및 心理등을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⑫

그들의 이러한 民族概念을 부르조아民族理論과는 根本적으로 다르다고 主張한다. 그들에 의하면 부르조아民族理論은 民族의 社會構成을 無視하고 있으며 民族의 客觀的 要素의 同位性を 無視하고 그 어느 一面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民族의 歷史的 範圍性を 否認하고 있다고 批判하고 있다.

勿論 이 最近의 研究에서도 資本主義的 民族과 社會主義的 民族으로 兩分하고 있다. 前者는 資本主義前半期와 帝國主義初期段階에 있는 부르조아民族으로서 帝國主義初期段階以後에는 階級간의 對立이 尖銳化되어 이미 民族的 任務를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프로레타리아의 地位가 강화된다고 하고 社會主義的 民族이란 國際主義에 立脚한 갈등없는 民族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準民族에 관한 概念을 明白히 하고 있는

点이다. 이 問題는 戰後 新生國의 民族問題에 관한 共產主義理論 理解에 重要한 것이라 하여 여기에 關係句節을 이끌어 본다.

“民族과 마찬가지로 準民族도 主로 物質的인 關係와 利害로써 集結된다. 그러나 準民族의 生産力은 특히 資本主義下에 있어서는 民族의 生産力보다는 낮으며 分業의 程度나 对内, 对外關係의 程度도 낮다. 準民族의 經濟的, 政治的 聯結은 매우 完만하며 무엇보다 家父長的이다…… 準民族의 諸特徵은 民族의 그것과 類似한 것이지만은 성숙의 質과 程度에 있어서 다른 것이다 …… 準民族이란 言語와 地域의 共同体이며, 經濟的, 政治的 및 文化的生活 그리고 人種的 自覚과 慣習의 萌芽的인 共同体인 것이다”^⑬

소련의 社会科学分野에 있어서 民族關係研究가 가장 뒤떨어진 不振한 分野라고 생각된다. 그 단적인 証拠가 스탈린의 모든 見解가 20次 党大会以後 곧 批判을 받고 排斥되었는데 反하여 그의 民族關係理論에 대한 本格的인 學術的인 批判이 1966年頃에야 비롯되었다는 点에 있으며 또 前述한 바와같이 70年代初까지도 그의 理論이 그대로 展開되고 있었다는 事實로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民族問題研究가 소련에서 不振한 理由는 다음 몇가지에 있다고 본다.

첫째로 소련共産党的 政治路線이 소련内の 諸民族의 社会經濟的, 文化的 現實에 대한 現實的인 評價를 沮害하고 있다는 点이다. 이런 事情은 党綱領의 다음과 같은 宣伝的인 規定으로서도 알 수 있다. 즉 “社会主義的 民族들의 友好的인 協力”, “부르조아 民族

主義”對 “社會主義的 愛國主義”，“ 부르조아世界主義”對 “프로레타리아國際主義”，“ 모든 소련內의 民族들의 全般的인 經濟的，文化的 協力”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民族關係의 動態的인 分析은 具體的인 資料로서만이 可能한 것인데 黨路線이 이런 研究의 進行을 阻害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民族問題研究를 위한 歷史的인 資料가 不足하다는 소련의 實情이고 끝으로 이 方面의 歐美學界研究에 관한 無關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民族問題研究의 水準은 Yu.V.Arutiunian. 의 말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具體的인 知識의 制限된 範圍가 必然的으로 우리의 理論的인 分析의 水準에 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¹⁴⁾ 이었다.

위에서 보아 온 소련의 民族理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914年，1929年，1950年에 發表된 스탈린의 古典的인 理論은 現在 修正을 받고 있다. 첫째 民族의 4가지 基準만을 고집할 수 없으며 특히 主觀的인 要素，즉 民族의 意識，共同體感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둘째로 스탈린의 4가지 要素를 同價值的인 것으로 看做하지 않고 決定的인 要素로서 經濟生活의 共同性을 강조하고 其外의 基準을 모두 從屬的인 것으로 看做한다.

그러나 스탈린以來 主張하여 온 다음의 問題는 그대로 答復하고 있다. 첫째 民族은 歷史的인 範疇로서，資本主義發生과 더불어 나타난 歷史的인 現象으로서의 社會主義革命으로 因하여 社會主義的 民族이라는 새로운 質으로 發展한다는 것. 둘째 民族의

社会構成을 강조하고 그간의 鬪争으로서 發展法則을 본다는 点,
따라서 帝國主義初期段階以後부터는 民族的 任務를 말할 수 없다는
点, 세계 人間共同體의 人種學的인 發展을 種族-準民族-民族-社
會主義的 民族-民族의 融合등의 順序로 보고 있다는 点등등의 基
本的인 立場은 그대로 固守하고 있다.

第五章 北韓의 民族概念

個人崇拜와 唯一思想이 支配하고 있는 곳의 學問, 특히 社會科學은 그 特定個人的 思想 또는 見解에 대한 註釋學的 範圍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事情은 스탈린時代의 소련의 社會科學分野의 狀況을 보면 곧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 北韓의 現實은 스탈린時代의 그것과는 比較가 안될 정도로 金日成唯一思想으로 支配되어 있어서 北韓의 社會科學關係는 金日成思想의 解說 註釋의 範圍를 조금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事情은 1972年 4月 北韓의 全國社會科學者大會에서 行한 朝鮮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양형섭의 報告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널리 해석선전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란 發表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다음과 같은 句節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 사회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옹호하며 해석선전하는 것보다 더 보람있고 영예로운 임무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과학자들은 이 영예로운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며 널리 해석선전하는 자량차고 중대한 사업에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연구하여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정

당성과 창조성을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석선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로작별로, 문제별로 해설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당성을 정치, 경제, 문화, 군사등 모든 분야에 걸쳐 깊이있게 논증하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⑮

이러한 實情에서는 金日成의 民族에 관한 演說이나 發表文을 分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이에 관한 金日成의 글은 內容없는 同一한 어휘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北韓에서 刊行된 몇가지 辭典類를 比較하면서 이 問題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먼저 民族問題에 관한 北韓의 立場을 分析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對外的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對內的으로 援用한다든가 혹은 소위 「科學的」인 內容과는 差異가 있다는 點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對外政策的인 面에서 援用하는 「民族」이란 用語의 使用은 그 內容이 마치 傳統的인 民族概念의 그것과 같은 外樣을 띄고 있다. 今年 9月9日에 行한 金日成의 演說中에 關係句節을 본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담보는 민족의 대단결에 있다. 우리나라의 북과 남의 현실적으로 다른 사상과 체도가 있는 조건에서 민족대단결의 이름과 원칙을 떠나서는 결코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결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투쟁이 아니며 그것을 침략과 피침략의 투쟁, 애국과 배국과의 투쟁이다. 다시말하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민족적 자주권을 위한 사상투쟁이며 민족적 단합을 위한 애국투쟁이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이 각각 공산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이념을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공통된 하나의 이념, 민족적 이념을 내세워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⑬

이러한 내용은 一見하면 前述한 民族主義的 民族을 政治名分으로 내세우는 傳統的인 民族概念과 類似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소위 「科學的」인 民族概念은 이와는 크나큰 差異가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1957년에 初版, 1959년에 第2版 그리고 1964년에 增補版으로 나온 「대중정치용어사전」의 「民族」項은 순전히 스탈린의 民族定義를 그대로 옮겨 쓰고 있다. 즉 民族이란 “언어, 영토, 경제생활, 심리적 상태 (문화의 공통성에 의하여 표현되는) 의 공통성에 의하여 오랜 역사를 거쳐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을 말한다. (이 네개의 공통성중 어느 하나가 빠져도 그것은 민족으로 되지 못한다) 민족은 자본주의의 발생과 함께 나타난 역사적 현상이므로 그 시초를 가질 뿐 아니라 종말도 가지고 있다.

전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고 모든 민족들이 유일한 공산주의적 경제체제를 가지게 되면 점차 민족들의 합류가 실현될 수 있다” ⑭

이러한 民族의 定義가 스탈린의 民族概念을 한 字句의 修正없이 그대로 受容하고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다. 그런데 1970年에 나온 哲學辭典, 政治用語辭典, 그리고 1973年에 나온 政治辭典의 民族의 定義는 이와는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政治辭典의 「民族」項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民族이란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 공통성은 우리나라에 일찍부터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세워지고 여기에서 언어, 지역, 문화, 경제생활의 공통성이 점차 이뤄지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이뤄졌다. 민족은 생물학적 표징에 의하여 구분되는 인종과 다르며 한 국가 안에 거주하면서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하는 공민(혹은 국민)과도 다르다” ⑬

1973年 정치사전의 규정은 1964年의 대중정치용어사전과 몇가지 점에서 다르다. 즉 民族의 基準으로서 혈통과 문화라는 것을 첨가하였으며 모든 條件의 必須具備를 言及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條件을 同價值的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金日成은 그의 교시에서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입니다. 핏줄이 같고 한 영토 안에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⑭ 라고 하여 언어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치 소련의 民族理論이 經濟生活의 共通性이 決定的 要素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과

對比된다. 우리나라의 민족적 공통성이 일찍부터 강력한 中央
權力的인 國家가 存在한데서 비롯된다는 것도 問題이다.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明白히 말하고 있지 않으며 부르조아民族은
封建制崩壞以後에 나타나는 現象이라고 그들도 主張하고 있기 때문
에 모호한 것이다. 즉 封建制崩壞以前의 人間集團을 무엇으로 看
做하고 있는지 分明치 않으며 民族史의 展開에 있어서 그들의 弱
點이기도 한 것이다. 즉 그들의 科學的인 民族理論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1850年代 前後한 時期부터 民族이 形成되는 것
으로 되는데 그들의 「조선통사」나 「조선력사」는 이 問題에 대
하여 分明치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朝鮮通史」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작동기를 설명하면서
「과학성과 인민성이 풍부한 훈민정음의 창제는 민족적주체성을 고
수하는 투쟁과정에서 이루어졌다(p. 527)라고 하여 민족적 주체
성에서 훈민정음이 창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훈민정음이 民族的
主体性에서 창작된 것을 정당하게 인정한다면 비슷한 동기에서 이
루어진 15세기의 모든 文化도 民族的 主体성과 關聯이 있으며
나아가서 그러한 文化를 바탕으로 성립된 15세기 사회 자체도
民族共同體的인 성격을 띠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논리적인 일관성
을 갖게 되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1973年 정치사건의
「民族」에는 民族이 歷史的인 範疇에 屬한다는 것을 明示하고 있
지 않지만은 民族을 부르조아民族과 社會主義的 民族으로 區別하고
있는 것을 보면 1964年 대중정치용어사전의 그것과 같은 것이다.

民族을 부르조아民族과 社會主義的 民族으로 兩分하는 것은 1929年 스탈린의 論文以來 共產主義의 民族理論에 모두 나타나 있는 것이고 北韓도 이런 兩分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그 內容이 64年과 73年間에 差異가 있다.

먼저 부르조아民族의 定義에 있어서는 64年の 대중정치용어사전과 70年の 정치용어사전간에는 一文章의 削除以外에는 70年の 사전은 前者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73年の 정치사전은 이 項目을 削除하고 다만 「부르조아民族運動」이란 項目만이 있을 뿐이다.

부르조아민족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발생하고 봉건주의적 할거주의적 분산성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이뤄진 민족을 말한다.

.....부르조아민족은 소수의 착취자와 절대다수의 피착취대중으로 갈라져 있으며 그들 사이에 치열한 계급투쟁이 진행된다. 또한 부르조아민족은 그 내부에서의 계급투쟁이 격화될 뿐 아니라 타민족에 대한 침략, 타민족에 대한 불신임과 증오, 소수민족에 대한 압박등으로 특징지어진다”²¹ 라고 定義하고 64年 사전에 보이는 부르조아民族이란 “오늘 자본주의제도하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을 말한다”란 文章을 削除하고 있다.

內容이 현저하게 差異를 보이는 것은 社會主義的 民族에 관한 說明이다. 먼저 1964年の 대중정치용어사전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민족들을 가르켜 이르는 말이다. 사회주의민

족은 자본주의 제도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제도가 나타났을 때 이뤄진다. 사회주의 민족이 부르조아 민족과 다른 점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소유하며 민족들 호상간의 평등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 호상간의 깊은 신뢰와 호상원조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민족 내에는 적대되는 계급이 있을 수 없으며 부르조아 민족보다 비할 바 없이 단결이 강하다.”²²

이런 설명은 실은 소련의 公式的인 解説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인데 1973年の 사진은 이 問題를 그들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민족. 사회주의적 민족은 노동계급이 주권을 잡고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협조하고 방조하는 사회주의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민족이다. 사회주의적 민족은 착취계급이 피착취계급을 억압착취하는 부르조아 민족과는 달리 근로자들 사이에 정치사상적 통일이 이루어진 민족이다”²³

이와 같이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나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와 같은 소련의 公式的인 用語를 削除하고 社會主義民族의 自主性을 前面에 내세우며 또 그 社會構成을 主張하고 있는 점이 特色이라고 볼 수 있다.

以上에서 보아온 北韓의 民族概念이 갖고 있는 重要한 點과

問題點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民族의 發生을 資本主義生産關係의 發生과 더불어 나타나는 歷史的인 現象으로 把握하는 共產主義民族理論의 圖式을 그대로 援用함으로써 韓國民族主義에 先在하는 歷史的 實체로서의 韓民族史를 無視하고 있다. 또한 소련의 理論에서 보이는 準民族에 關한 概念도 北韓에서는 展開되고 있지 않다.

부르조아民族과 社會主義民族을 兩分하는 共產主義理論을 授用하면서 그 說明에 있어서는 소련의 그것과는 差異點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兩分法은 南北韓의 政治社會의 人的인 構成이 政治的으로 그 性格이 質的으로 다르다는 것을 意味하며 이런 兩分法은 결국 東獨에서 보는 바 같이 二民族理論으로 發展될 素地가 充分히 있는 것이다.

그들의 政治統治의 名分은 결코 民族全體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위의 定義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르조아民族에서는 노동자 농민이 名分의 主体이며 社會主義民族에 있어서도 그 全體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등의 階級이 그 政治統治의 名分이란 點이다.

第六章 結 論

民族主義의 人的인 構成인 民族이라는 客觀的 実体에 對한 認識 態度에 있어서 傳統的인 概念과 共產主義的인 概念간에는 深刻한 差異點이 存在하고 있다.

共產主義國家라고 하는 政治形態는 現在라는 歷史的段階에 있어서 는 主權國家라는 近代國家의 形式을 갖고 있으면서 同時에 名分上 으로는 階級을 바탕으로 하는 起國家的이고 反民族國家的인 統治名 分을 지니고 있다.

그들이 近代國家라는 政治形態를 取하고 있는 事實로 부터 必然 的으로 國家的이고 民族的인 利害가 나오는 것이며 이런 緣유로 해서 分斷國家에 對해서는 그간의 敵概念에도 不拘하고 「民族」이 어떤 上位價值로서 通用되어 왔다.

그러나 數年以來 北韓의 實情에서 보아 오듯이 共產主義人間化의 作業이 組織的으로 進行되어 오고 또 이 上位價值로서의 「民族」 에 對한 相異한 認識態도와 概念을 강조하고 있음은 重大한 問題 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現在로서는 南北韓의 統一은 韓民族이라는 上位概念에 立脚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어떠한 代換價值도 發見할 수 없는 까닭에 어떠한 民族像을 相互간에 妥協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가 重要하 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數年以來의 狀況이 共產과 反共의 對立에서 階級과 民族이라는
名分上의 對立으로 轉換되는 現實에 비추어 民族像에의 同質化作業
이 進行되어야 한다고 본다.

(註)

- ① 李用熙著 盧在鳳編, 韓國民族主義, 端文堂, 1977. p.10
- ② E.Renan.: "Qu'est-ce que la Nation? (1882)", Nationalism. A Report by a Study Group of Members of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Frank Cass & as 1963, p.259에서 再引.
- ③ J.Stalin: "Qu'est-ce que la Nation? 1914"; F.Chatelet et al eds: Les Marxistes et la Politique, PUF.1975.p.183
- ④ J.Stalin: Le Marxisme et les Problemes de Linguistique, 1950, 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n.d. p.8-9
- ⑤ 예를들면 "Natsia" in Bolshaya Sovetskaya Entsiklopedia 1939.T.41, S.402-404, in Bolshaya Sovetskaya Entsiklopedia, 1954, T.29, S.306-309 에 보면 1914年の 스탈린의 民族에 관한 定義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⑥ Fundamentals of Marxism-Leninism, 2nd revised edition, Moscow, 1963, p.151 또한 1973년에 出刊된 著書의 民族에 관한 定義도 이와 같다. 즉 "民族이란 같은 言語, 같은 地域, 같은 經濟生活, 그리고 다른 人民의 文化와 區別되는 特定人民의 文化의 特徵内에 表現되는 社会心理의 어떤 特徵등으로 뭉쳐진 人民의 共同体이다." The Fundamentals of Marxist-Leninist Philosophy, Moscow, 1973, p.394.

- ⑦ 이 論争의 主要内容은 H.Mommsen.& A.Martiny. : "Nationalism, Nationalities Question, "in Kerning, C.D.(ed) Marxism, Communism and Western Society (N.Y. Herder & Herder, 1973), vol.IV, pp. 54-55 를 参照하였음.
- ⑧ "Natsia", in Bolshaya Sovetskaya Entsiklopedia, 1974. T. 17, S. 375
- ⑨ Institute of Marxism-Leninism, cc, CPSU, Leninism and the National Questions, Moscow, Progress, 1974. pp. 18-19
- ⑩ Ibid. pp. 19-20
- ⑪ Ibid. pp. 20-24
- ⑫ Ibid, pp. 27-28
- ⑬ Ibid, p. 46
- ⑭ 註 7 에 든 冊, p. 55 에서 再引
- ⑮ 國土統一院編「金日成主体思想關係資料集」, 1976. pp. 858-859
- ⑯ 國土統一院 時事情報課, 「北傀創建 30 週紀念中央慶祝大会 - 金日成演說全文」, 1978. pp. 251-252
- ⑰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로동당출판사, 1964.P. 173
- ⑱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422-3
- ⑲ 「김일성저작선집」 4권 p. 1
- ⑳ 北韓研究所, 「朝鮮史」批判 1978. p. 88
- ㉑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p. 292-3

②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로동당출판사, 1964. p

③ 「앞에 든 「정치사전」, p. 580, 「정치용어사전 (1970)」의 내용도 同一하다.